

파라과이 한국인 이민 50주년과 양국 관계

기예르모 F. 멜가레호

현재 700만 명가량의 한국인이 해외에 살고 있으며, 그 중 10만 7천명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정착했다. 한국어로 ‘교포’ 또는 ‘동포’라는 단어가 그들의 삶 대부분을 자국을 벗어나 살고 있는 한국계 이민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파라과이 사례를 들고자 한다. 1965년 2월 17일, 95명의 한국인 이민자를 태우고 부산항을 떠난 보이스벤(Voiceben) 호는 동년 4월 22일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 도착했다. 바로 이날을 기려 파라과이의 ‘한국의 날’(Día de Corea)로 정했다. 올해 2015년은 한국 이민자들이 파라과이 땅에 첫발을 내딛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후 1970-80년대에는 더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파라과이와 한국 간의 양국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65년은 파라과이를 향한 한국인 이민 움직임이 처음 있었던 해이자 양국 간에 처음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된 해이기도 하다. 초기에 들어온 이민자 수는 1,200명가량이었으며 나중에 30,000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주로 파라과이의 시골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실패를 겪으면서 점차 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되었거나,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들로 재이민을 갔다. 현재 파라과이에는 약 6,000명 정도만 남아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아순시온(수도), 페드로 후안 카바예로, 시우닷 델 에스테(브라질 접경지역), 엔카르



필자

나시온(아르헨티나 접경지역) 등지에 퍼져 있다.

이들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직물업에 특화되었으며(그러나 파라과이 경우는 특히 소매업), 일상용품 판매에도 종사했다.

파라과이 내 한국인의 직물업은 1970년대 들어 저가 전략, 방문 판매, 할부 판매 등을 통해 중산층과 하류층, 또 중상류층과 상류층 간의 격차를 좁히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파라과이 주재 한명재 한국대사는 2015년 4월 23일, 파라과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파라과이 한국 이민 50주년 기념행사에서, “파라과이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대사는 50년 전에는 양국 간 무역교류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2014년에는 3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매년 천만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라과이와 한국, 양국관계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한국 초기 이민자들의 파라과이 도착(1965-1970)

1960년대에 시작된 양국관계는 1970년대에 들어 양국 간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협정 체결이 이뤄지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초기 협정은 문화 및 기술협력 분야에 치중했다. 시골 지역에 정착한 초기 한국 이민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이민협정은 농촌 지역에서의 농업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한국 이민자들은 여러 가지 제약에 맞서야 했다. 그 중 하나가 언어였고, 또 다른 중요한 제약은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의 부족이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이민자들은 다른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서야 했고, 그 결과 도시와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상업과 직물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2단계: 재 파라과이 한국인 공동체의 형성과 정착(1971-1999)

이 시기는 파라과이에서 한국인 공동체가 형성, 정착되는 단계로 소위 이민 1.5세대 또는 2세대의 기여가 크다. 이 시기에는 한국 이민자들이 초기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현지에 적응하게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합법적인 이민자 집단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한국 이민자들이 도시의 사회-경제적 층위에서 파라과이에 미친 영향 가운데 두드러진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주로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상들의 정착이고, 그 다음으로는 일상용품 판매 체계와 영업시간의 정착이다. 한국인 공동체의 공고화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들로는 교회와 학교 설립을 들 수 있다. 이 공간들은 한국인 이민자들의 정체성 보존, 공동체적 삶의 영위, 미래 비전에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사실 한국 이민자들에게 있어 예배를 드리거나 아이를 교육하는 터전은 중요한 관심사였고, 본국에서 가지고 온 유산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교회 신도들이다. 파라과이와 한국의 관계를 돈독하게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관들로는 재 파라과이 교민회, 파라과이-한국 상공회의소, KOTRA, KOICA를 들 수 있다.

1.5세대 또는 2세대로 불리는 초기 이민자들의 자식과 손자들은 대부분 초기 이민자들의 주된 삶이었던 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인 공동체가 정체되어 있거나 초기 활동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세대는 직종을 바꾸어 전문직 영역(의사, 치과의사, 언론인, 회계사, 관리인, 건축가 등등)에 진출했다. 파라과이의 아주 돋보이는 회사들 가운데 이 세대의 젊은 층이 경영인으로 있는 회사들이 있다. 이 기업가 집단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 볼 수 있는 집단과는 아주 다르다. 이 두 나라에서는 한국인 청년들이 아직 직물업 전통과 제1세대 부모들이 하던 거의 모든 일을 고수하고 있다.

3단계: 외교 및 영사 관계 정착(2000-2015)

한국 정부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교 의제도 한층 강화되었다. 비록 한국 정부가 주도한 일이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특히 파라과이는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속적인 양자간,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열의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중공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 지역의 천연자원 획득과 에너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으로 설명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존재감을 계속 보이고자 하는 한국의 이해는 양국 간의 공식 외교방문은 물론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같은 역내 블록에 대한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칠레와 FTA협정을 체결한 나라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주기구(OEA)의 옵서버 국가 자격으로 리우그룹(Grupo Ri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미주개발은행(BID)의 역외 회원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파

파라과이에서 한국이 왕성하게 펼치는 협약과 프로젝트들, 이를테면, KOICA의 기술 및 재정적 협력이라든지, 파라과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가져오는 좋은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교류 확대를 목표로 선도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양국 대사관의 훌륭한 정보 및 지원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현재 파라과이는 한국 대비 무역적자가 매우 크며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는 존재한다고 본다. 무대의 한편에는 분명 시장규모 같은 제약 요소들이 작용한다. 인구가 6백만 명이 좀 넘고 대부분 저소득층인 파라과이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큰 시장이 아니다. 또한 파라과이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거리상 교역에 드는 운송비용이 높은데다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적다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제약 요소들은 양국 간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접근 욕구를 통해 경감시켜야 한다. 한국은 통신, 하부구조, 경공업, 정보통신기술 등 ‘녹색성장’ 분야에 기여할 것이 많은 나라이다.

무대의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파라과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사람들은 파라과이가 한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여러 요인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토지 투자, 건설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양국관계의 현안은 지금과 같이 두 나라 간의 외교관계가 탄탄할 때 한국-파라과이 간 FTA를 진전시키는 일이다. 좋은 예로, 2004년에 체결된 칠레와 한국의 FTA는 상호 간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파라과이 역시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다 지난 50년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국과 FTA를 맺게 될 때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제안과 조언은 앞으로 두 나라가 상호 윈-윈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과 목표로 삼는 정책 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왜 한국이 파라과이를 돕는지 자주 자문해본다. 그에 대한 대답은 파라과이가 개발협력기구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가 KOICA의 지원을 받는 수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KOICA 파라과이 봉사단 현지평가회의 (출처: KOICA 파라과이 사무소)

국의 필요에 따른 특정 지원이 강화될 수도 있다. 파라과이 주재 KOICA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자동 신호등 시설을 필두로 한 한국 정부의 꾸준한 파라과이 지원은 이에 따른 것이다.

상기 KOICA 당국은 파라과이와의 협력과 관련해서 양국이 반세기 넘게 상호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다. KOICA 파라과이 사무소는 1995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협력전략 2013-2015’(Estrategia de Alianza País 2013-2015)이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을 통해 한국의 대 파라과이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목표를 지니고 있다.

- 1) 기초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 2) 생산적 향상 및 취약계층의 역량 제고
- 3) 운송시스템 개선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강력한 국제협력과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던 시절, 가장 가난했던 시절, 국가의 존망이 기

로에 있던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국가들에 집중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50년 전의 파라과이를 비롯해, 도움을 준 나라들에게 신세를 갚고자 하는 것이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파라과이와 한국이 많이 비슷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그리고 파라과이 주재 KOICA 사무소에 재직 중인 김나영 씨의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국가가 되었기에 남다른 개발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경험에 기초한 우리의 지식과 기술 이전은 다른 나라의 개발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신찬용 옮김]

참고문헌

- <http://www.abc.com.py/edicion-impresa/politica/corea-agradece-a-paraguay-por-dar-la-mano-a-inmigrantes-hace-50-anos-1359390.html>
- <http://www.abc.com.py/edicion-impresa/suplementos/economico/cincuenta-anos-de-la-relacion-entre-paraguay-y-corea-del-sur-459983.html>
- <http://ejemplar.com/actualidad/por-que-corea-ayuda-a-paraguay>
- <https://diasporaasiaoriental.wordpress.com/coreanos-en-latinoamerica/>
- <http://comollegar.paraguay.com/nacionales/gobierno-celebra-medio-siglo-de-inmigracion-coreana-127037>
- <http://alparaguay.blogspot.com/2009/09/coreanos-en-paraguay.html>

기예르모 프란시스코 멜가레호 로페스(Guillermo Francisco Melgarejo López) — 1978년 10월 4일 파라과이 아순시온 태생이다. 1997년부터 파라과이 외무부에 재직 중이며, 2003년에는 국립아순시온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Asunción)에서 경제학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부터 주 한국 파라과이대사관 무역·문화 담당관으로, 2014년부터는 주 에콰도르 파라과이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찬용 — 전북대학교 스페인어학과 교수